





저는 제라드 덕분<sup>에</sup> 어느덧 혼자 영어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고,

로렌 덕분<sup>에</sup> 에이미, 조엘, 루키, 에슐리 등 많은 친구들과

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정말 저는 뉴질랜드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.



추억의 사진들



에슬리와 찍은 사진





저는 제라드 덕분에 어느덧 혼자 영어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고,

로렌 덕분에 에이미, 조엘, 루키, 에슬리 등 많은 친구들과

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정말 저는 뉴질랜드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.



추억의 사진들



에슬리와 찍은 사진

저는 그 친구들에게 영어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 
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.



하지만 1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 
보답은 커녕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.

어린 나이에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 
갑자기 사라진 친구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텐데,

저는 16년이 지난 지금  
그때의 추억과 친구들이 너무 그리고 미안해요.